

**Session 8 The 70-Weeks Prophecy of Daniel 9:24-27 (Part 2)**

**8 과 다니엘 9:24-27 의 70 이레 예언 (파트 2)**

**I. OVERVIEW OF DANIEL 9:24-27 (REVIEW)**

**9:1-27 절 개관 (복습)**

A. Daniel 9:24-27 is the only passage in the Bible that presents Jesus' first and second comings and death along with the restoration of Jerusalem and the temple and their destruction once again. It also sets forth the temple at the time of the Tribulation and the abominations of the Antichrist, along with the resulting desolations and the final judgment on the Antichrist. It is the only place in the Bible that the whole story about the Messiah and the salvation of Israel is set forth.

다니엘서 9:24-27 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죽음에 대해 말하되,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파괴될 것과 함께 말하는 유일한 구절이다. 이는 또한 대환난 때의 성전과 적그리스도의 가증한 것을 말하되, 이로 인한 황폐함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함께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메시아와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를것에 대한 전체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1. God's plan to restore Israel includes six great blessings released over 70 weeks (v. 24)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6 가지 위대한 축복들이 70 이레 동안에 부여되는 것을 포함한다 (24 절)
2. Jerusalem was restored, and Messiah came to Jerusalem (v. 25)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25 절)
3. Jerusalem was destroyed after Messiah was killed in Jerusalem (v. 26)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26 절)
4. The Antichrist will cause great desolations, and then he will be destroyed (v. 27)  
적그리스도가 큰 황폐함을 일으키고, 이후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27 절)

B. The 70-weeks prophecy (9:24-27)

70 이레 예언 (9:24-27)

1. Israel's salvation and restoration: six glorious promises (9:24)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6 개의 영광스런 약속들 (9:24)
2. Events *during* the 69 weeks (9:25): Messiah came after Jerusalem was restored  
69 이레 **동안**의 일들 (9:25):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에 메시아가 오심
3. Events *after* the 69 weeks (9:26): Messiah was killed, and Jerusalem was destroyed  
69 이레 **이후**의 일들 (9:26):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이 파괴됨
4. Events *during* the 70th week (9:27): the Antichrist, his covenant, and the Great Tribulation.  
70 번째 이레 **동안**의 일들 (9:27): 적그리스도, 그의 조약, 그리고 대환난

- C. Gabriel revealed that Israel would suffer oppression for *70 weeks inside the land* (Dan. 9:24-27). Jeremiah’s prophecy: Israel would suffer under the Gentiles for *70 years* outside the land (9:2). Daniel’s prophecy: Israel would suffer under the Gentiles for *70 weeks* in the land (9:25-27). 가브리엘은 이스라엘이 **70 이레 동안 그 땅 안에서** 고난 받을 것에 대해 밝혔다 (단 9:24-27). 예레미야의 예언: 이스라엘은 **70 년** 동안 타국의 이방인 아래에서 고난 당할 것이다 (9:2) 다니엘의 예언: 이스라엘은 **70 이레** 동안 자신의 땅에서 이방인 아래에서 고난 당할 것이다 (9:25-27).
- D. Gabriel assured Daniel that complete forgiveness and restoration would come to Israel (v. 24), but only after Israel was disciplined and purified by fire (v. 25-27). Understanding Israel’s glory in the Millennium (v. 24) helps us to understand the trouble that Israel experiences (v. 25-27). 가브리엘은 이스라엘이 혼계를 받고 불로 연단된 후에야 (25 절-27 절) 온전한 용서와 회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확인 시켜주었다 (24 절). 천년왕국 동안의 이스라엘의 영광(24 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겪을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25-27 절).
- E. Gabriel revealed that God’s answer included sending Messiah (v. 25) to personally establish what God promised Israel in Daniel 7. God will permanently restore Jerusalem and the temple in a way that is vastly superior to the restoration under Ezra and Nehemiah as set forth in verse 25.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다니엘서 7 장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직접 세우실 메시아 (25 절)를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준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영구적으로 회복하실 것이며, 이는 25 절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증진된 정보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 될 것이다.
- F. God’s plan contained surprising developments—Messiah being killed, leading to Jerusalem and the temple being destroyed again (v. 26), like the destruction of Solomon’s temple in 586 BC. The temple will be rebuilt in the end times, and again made desolate, by the Antichrist (v. 27).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 예루살렘과 성전이 주전 586 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다시 파괴된다 (26 절). 이 성전은 마지막 때에 재건될 것이며 적그리스도에 의해 또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27 절).
- G. The end of Israel’s 70 years of Babylonian captivity did not end the captivity from her rebellion. Israel’s captivity to sin and oppression would only truly end after 70 weeks (70 units of seven). Israel must first pass through 70 prophetic periods of seven years before the six glorious promises that Gabriel set forth in Daniel 9:24 are fully manifest in Israel’s national experience. 이스라엘의 바벨론 70 년 포로기는 끝이 났으나, 그들은 여전히 반역 가운데 있었다. 이스라엘이 죄와 억압에 묶여 있는 것은 70 이레 (7 이레의 70 번) 이후에야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9:24 에서 말한 6 개의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이스라엘에 국가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7 년이 70 번 거치는 예언적인 시기를 지나야만 한다.
- H. The 70 weeks (490 years)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7 weeks (49 years), 62 weeks (434 years), and the 70th week (final 7 years before Jesus’ returns). There is an approximate 2,000-year gap after the 69 weeks, before the 70th week begins. After Jesus was killed in Jerusalem, the “prophetic clock” stopped for 2,000 years until Israel was back in their promised land. 70 이레 (490 년) 의 기간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7 이레 (49 년), 62 이레 (434 년) 그리고 70 번째 이레 (예수님의 재림 전 마지막 7 년). 69 이레 후에, 70 번째 이레가 시작 되기 전에는 약 2,000 년의 공백이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 '예언적 시계' 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2,000 년 동안 멈춰어 있었다.

## II. MESSIAH WAS COMING AFTER JERUSALEM WAS RESTORED (DAN. 9:25)

## 예루살렘이 회복된 후에 오시는 메시아 (단 9:25)

- A. Messiah was to come only after Jerusalem was restored (9:25). Jerusalem was restored— including its streets and walls. That this process began with a command to restore Jerusalem. Verse 25 described events occurring *before* the 69 weeks (483 years) were complete.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오시게 되어 있었다 (9:25). 예루살렘은 거리와 성벽들을 포함해서 회복되었다. 이 과정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5 절은 69 이레 (483 년)가 완성되기 이전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

<sup>25</sup>“Know therefore and understand, that from the going forth of the command to restore and build Jerusalem until Messiah the Prince [Jesus], there shall be seven weeks [49 years] and sixty-two weeks [434 years]; the street shall be built again, and the wall, even in troublesome times.” (Dan. 9:25)

<sup>25</sup>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곧 왕 [예수님] 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 [49 년] 와 예순두 이레 [434 년] 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단 9:25)

- B. **Know and understand**: Gabriel called Daniel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this vision because it’s meaning was not immediately obvious. Daniel was to seek to understand it (v. 23, 25).

**깨달아 알지니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자세하게 깨달으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순식간에 명백히 알아질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이를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23, 25 절).

- C. **To restore Jerusalem**: Gabriel promised that Jerusalem would be restored and rebuilt. It had not fully functioned as a city since it was destroyed about 50 years previously, in 586 BC.

**예루살렘을 중건**: 가브리엘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중건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곳이 50 년전인 주전 586 년에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 D. **The street and wall built**: Gabriel emphasized that the street and the wall would be built again. “The street” is the Hebrew word *rehab*, which can be translated as *open square*, *broad place*, or *plaza*. Mentioning “the street,” the city’s main street, indicates that the city would function again.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가브리엘은 광장과 거리가 재건될 것을 강조했다. “거리”란 개방형 광장, 넓은 장소 혹은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레합 (*rehab*) 이다. “거리”는 도시의 주요 거리로써, 도시가 다시 그 역할을 할 것을 나타낸다.

- E. **7 weeks and 62 weeks**: Gabriel distinguished the first “7 weeks of years” (49 years) from the following “62 weeks of years” (434 years). He introduced two periods of time—a 49-year period followed by a 434-year period. The two periods are distinguished by a significant event—the rebuilding of Jerusalem. Thus, 49 years after the command was given, the city of Jerusalem was rebuilt. The total “69 weeks of years” (7 weeks plus 62 weeks) equals 483 years.

**7 이레와 62 이레**: 가브리엘은 첫 “해의 7 이레” (49 년) 를 그 다음의 “해의 62 이레” (434 년) 와 구별했다. 그는 두 기간을 언급했는데, 먼저 49 년 동안의 기간이 있고, 그 이후 434 년의 기간이 오게 된다. 이 두 기간은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중요한 사건으로 구분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는 지 49 년후에 예루살렘 도성이 재건되었다. 총 “해의 69 이레” (7 이레 + 62 이레)는 483 년이 된다.

- F. **Troublesome times**: The blessing of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the restoration of Jerusalem occurred in the context of trouble and difficulty (Neh. 4:1-23; 9:36-37). We sometimes assume that when God’s prophetic purpose unfolds, it should “feel” powerful and happen without trouble.  
**그 곤란한 동안에**: 메시아의 오심과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축복은 고난과 어려움의 배경 속에서 일어났다 (느 4:1-23; 9:36-37).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이 풀어질 때, 그것은 강력하게 ‘느껴져야’ 하며 어려움이 없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버린다.
- G. **Until Messiah the Prince**: It is accepted by top scholars that Jesus’ ministry started in 26/27 AD and that His crucifixion occurred in the spring of 29/30 AD. Here, Gabriel defined the Messiah as the “Prince” (king of the nations) whom Daniel saw being commissioned in heaven (7:13-14).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 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주후 26/27 년에 시작되었으며 그분의 십자가 고난은 주후 29/30 년 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유명한 학자들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가브리엘은 메시아를 “왕” (열방의 왕)으로 정의하는데, 다니엘은 이 분이 하늘에서 왕으로 임명 받는 것을 목격했다 (7:13-14).
- H. **The command**: From the Persian king’s command to restore Jerusalem until the coming of Jesus to begin in His ministry in 26/27 AD, there shall be 69 weeks, or 483 years (49 plus 434 years).  
**명령**: 바사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한 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주후 26/27 년까지, 69 이레 혹은 483 년의 기간이 흘렀다 (49 년+ 434 년).
1. Gabriel made it clear that a Gentile king would give a decree to rebuild Jerusalem. This seemed impossible. Imagine the king of Persia (president of Iran) doing that today!  
 가브리엘은 이방의 왕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을 분명히 말했다. 이것은 실로 불가능해 보였다. 현대의 바사 (현 이란) 왕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2. It was a significant prophetic sign for the generation in which Jesus came. God held Israel accountable for not recognizing the time of God’s visitation in sending the Messiah to them. Israel was disciplined by God in 70 AD for rejecting Jesus (Lk. 19:41-44).  
 이는 예수님의 초림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징조였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시는 그 때를 인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책임을 물으셨다. 주후 70 년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눅 19:41-44).  
<sup>43</sup>“For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sup>44</sup> level you, and your children within you, to the ground...because you did not know the time of your visitation.” (Lk. 19:43-44)  
<sup>43</sup>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sup>44</sup>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KJV 흠정역: 너를 돌아보는 때를)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눅 19:43-44)
- I. **Four Persian commands**: There were four decrees to rebuild Jerusalem and/or the temple. The right dates can be understood when comparing them to the realities of historical events. A key to understanding when the 69 weeks (483 years) began is to see where it ended 49 years (7 weeks) and 483 years later. Do the dates correspond to Jerusalem and the coming of Jesus?  
**바사 (페르시아) 로 부터 나온 4 개의 명령**: 성경에는 예루살렘 혹은 성전 재건에 관한 4 개의 명령이 나온다. 이들을 역사 속 사건들을 비교해볼 때 올바른 날짜가 언제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69 이레 (483 년) 가 언제 시작하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9 년 (7 이레)와 483 년이 언제 끝났는지를 보면 된다. 이 날짜들이 예루살렘의 상황과 예수님의 초림과 일치하는지를 보면 된다.

<sup>14</sup>*The Jews...built...according to the command of Cyrus, Darius, and Artaxerxes king of Persia [two decrees]. (Ezra 6:14)*

14 유다 사람...건축...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2 개의 칙령] 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스 6:14)

J. King Artaxerxes decree to Ezra in 458 BC (Ezra 7:11-26): 483 years brings us to 26/27 AD. In my opinion this is the most convincing date, since Jesus' ministry probably began in 26/27 AD. The messianic prophecies are precise, so we expect this one from Gabriel to also be precise.

주전 458 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스 7:11-26): 이로부터 483 년 후는 주후 26/27 년이 된다. 내 의견으로는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날짜인데,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주후 26/27 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은 정확하므로 가브리엘이 한 말들 역시 정확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 This decree allowed Ezra to strengthen the temple and set judges in place (Ezra 7:11–26). Rebuilding Jerusalem was not directly stated but clearly implied in Ezra 4:12, 21; 9:9 as two reports given that describe what Ezra did in Jerusalem—he built the city and walls.

이 조서는 에스라로 하여금 성전을 굳건히 하며 곳곳에 재판관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였다 (스 7:11-26). 예루살렘의 중건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에스라 4:12, 21; 9:9 절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분명히 암시되는데, 이는 그가 거리와 광장을 세운다는 것이다.

<sup>12</sup>*...the Jews [Ezra and company] who came up from you [King Artaxerxes] have come to us at Jerusalem, and are building the...city and finishing its walls...<sup>13</sup>Let it now be known to the king that, if this city is built and the walls completed, they will not pay tax...<sup>21</sup>Now give the command to make these men cease, that this city may not be built until the command is given by me [Rehum the commander]. (Ezra 4:12-21)*

<sup>12</sup> ...당신 [아닥사스다 왕] 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 [에스라와 동료들]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sup>13</sup>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sup>21</sup>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방백 르흠] (스 4:12-21)

<sup>9</sup>*“He [God] extended mercy to us [Ezra and the Jews] in the sight of the kings of Persia, to revive us, to repair the house of our God, to rebuild its ruins, and to give us a wall in...Jerusalem.” (Ezra 9:9)*

<sup>9</sup>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에스라와 유대인들] 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스 9:9)

2. The completion of Ezra and Nehemiah’s rebuilding work in Jerusalem is probably the significant development that occurred in 409 BC (49 years after the 458 BC decree).

The Elephantine Papyri mentioned the man who replaced Nehemiah as the governor of Judah in 407 BC —indicating that 409 BC was the end of Nehemiah’s work in Jerusalem.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재건의 완성은 아마도 주전 409 년 (주전 458 년에 조서가 있은 후 49 년후) 에 있었던 중요한 국면이었을 것이다. 고대 문서인 엘레판티네 파피루스는 주전 407 년에 느헤미야를 유대의 총독으로 세운 자를 언급했다. 이는 주전 409 년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친 해였음을 알려준다.

- K. Artaxerxes’ decree to Nehemiah in 445 BC (Neh. 2:1-8): 483 years brings us to 38 AD. Sir Anderson calculated 483 years, or 173,880, days from this decree (taking into account leap years), and arrived at April 6, 32 AD. (His calculations have been questioned by many). The argument against this decree is that Jesus did not start His ministry in 32 AD or in 38 AD. With better historical records, many scholars today believe that His crucifixion occurred in 29/30 AD.

주전 445 년에 느헤미야에게 내려진 아닥사스다의 조서 (느 2:1-8): 이로부터 483 년 후인 주후 38 년이다. 앤더슨 경은 조서가 내려진 후로부터 483 년, 혹은 173,880 일 (윤년을 고려해서) 은 주후 32 년 4 월 6 일이 된다고 계산했다 (많은 이가 그의 계산에 의문을 품었다). 이 조서를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의 논쟁은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주후 32 년 혹은 38 년에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더 확실한 역사의 기록에 따라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그분의 십자가 고난이 주후 29/30 년에 일어났다고 믿고 있다.

- L. King Cyrus’ decree to Zerubbabel in 538 BC (Ezra 1:1-4): 483 years brings us to 55 BC.

The argument against this is that Jesus did not come in 55 BC.

주전 538 년에 스룹바벨에게 내려진 고레스 왕의 조서 (스 1:1-4): 이로부터 483 년 후는 주전 55 년이다. 이 날짜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이 주전 55 년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 M. King Darius’ decree to Tattenai in 518 BC (Ezra 6:1, 6-12): 483 years brings us to 35 BC.

The argument against this is that Jesus did not come in 35 BC.

주전 518 년에 닷드내에게 내려진 다리오 왕의 조서 (스 6:1, 6-12): 이로부터 483 년 후는 주전 35 년이다. 이 날짜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이 주전 35 년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 N. Artaxerxes’ decree to Ezra in 458 BC is the most convincing date, since Jesus’ ministry probably began 483 years later in 26/27 AD and the initial restoration of Jerusalem was probably complete in 409 BC (49 years after 458 BC). There are no significant redemptive events that occurred 49 years (7 weeks) or 483 years (69 weeks) after the other decrees—in 489 BC and 55 BC (Cyrus’); in 396 BC and 38 AD (Artaxerxes’ second decree); and 469 BC and 35 BC (Darius’).

주전 458 년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로부터 받은 조서가 가장 확실한 날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483 년후인 주후 26/27 년에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의 초기 재건이 주전 409 년 (주전 458 년의 49 년 후)에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조서가 내려진 후 49 년 (7 이레) 혹은 483 년 (69 이레) 지났을 때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 주전 489 년과 55 년 (고레스); 주전 396 년과 주후 38 년 (아닥사스다의 두 번째 조서); 주전 469 년과 35 년 (다리오).

### III. THE MESSIAH WAS KILLED AND JERUSALEM WAS DESTROYED (DAN. 9:26)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단 9:26)

- A. Gabriel described events that occurred *after* the 69 weeks, or 62 plus 7 weeks, (9:26). Jesus was killed, and Jerusalem was destroyed. Verse 26 focuses on events related to Jesus' first coming.  
가브리엘은 69 이레 후 혹은 62 이레와 7 이레 (9:26) 뒤 일어난 사건에 대해 묘사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다. 26 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sup>26</sup>“*After the sixty-two weeks Messiah shall be cut off [killed], but not for Himself; and the people of the prince who is to come [Antichrist] shall destroy the city and the sanctuary. The end of it shall be with a flood, and till the end of the war [70 AD] desolations are determined.*” (Dan. 9:26)  
<sup>26</sup>예수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임 당할 것이며] 장차 한 왕 [적 그리스도] 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 [주후 70 년] 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단 9:26)
- B. ***After the 62 weeks:*** Gabriel told Daniel that “62 weeks,” or 434 years, after Jerusalem was restored (409 BC), two momentous events would occur—the death of the Messiah, initiated by the leaders of Israel, and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its temple by the Romans in 70 AD. From the command to restore Jerusalem until Jesus arrived, there were 69 weeks (483 years), which is the total of 7 weeks (49 years) plus 62 weeks (434 years).  
**62 이레 후:** 가브리엘은 예루살렘이 회복 (주전 409 년) 된 후 “62 이레” 혹은 434 년 후에 두 가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을 다니엘에게 말했는데, 한가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초래했던 메시아의 죽음이고 또 한가지는 주후 70 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조서가 내려진 뒤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 69 이레 (483 년) 가 걸렸으며 이는 총 7 이레 (49 년) 와 62 이레 (434 년) 가 지난 것이다.
- C. ***Shall be cut off:*** To be “cut off” is an idiom for being killed—cut off in death (Gen. 9:11; Ex. 31:14; Isa. 53:8; Jer. 11:19). Imagine, how shocking it must have been for Daniel to hear that the Son of Man of Daniel 7:13-14 would be cut off. He had pondered the Daniel 7 vision for about 15 years (he received it in 553 BC). About 150 years earlier, Isaiah had prophesied that the Servant of the Lord (Messiah) would be cut off in death for our sins (Isa. 53:8).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끊어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의 관용구이다. 죽음으로 끊어지다 (창 9:11; 출 31:14; 사 53:8; 렘 11:19). 다니엘이 다니엘서 7:13-14 절에서 보았던 그 인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상상해보라. 그는 약 15 년동안 (주전 553 년에 이 환상을 받음) 다니엘서 7 장에 나온 환상에 대해 숙고하였다. 약 150 년전, 이사야는 주님의 종 (메시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 당할 것을 예언 했다 (사 53:8).
- Gabriel did not reveal to Daniel who would kill the Messiah. Several decades later, the Lord showed Zechariah that the Jewish leaders would reject the Messiah (Zech. 11:7-14).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누가 메시아를 죽일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수 십 년 후 주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거부할 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다 (슌 11:7-14).
  - Killing the Messiah was the lowest point in Israel's history and the turning point in God's plan for Israel. When Jesus was killed after the 69th week God's prophetic time clock was put on pause for about 2,000 years, until Israel would be back in the land with a temple.  
메시아를 죽이는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상 가장 암울함 일이었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전환점이었다. 69 번째 이레 후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성전이 있는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2,000 년간 멈추어 있었다.

- D. **Not for Himself**: Jesus died for the benefit of His people in that His death was substitutionary.  
**그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죽임 당하셨고 그는 그들을 대신해 죽임 당하셨다.
- E.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temple**: Israel’s idolatry had led to Jerusalem and the temple being destroyed and the Jewish people being driven out of the land and into Babylon for 70 years. Later, Israel’s rejection of the Messiah led to Jerusalem and the temple being destroyed by the Roman army, and the Jewish people being driven out of the land for nearly 2,000 years.  
**예루살렘과 성전의 함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도록 했으며 유대인들은 70 년간 그들의 땅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쫓겨났다. 이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로마군대에 의한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가 일어났고 유대인들은 2,000 년 가까이 자신들의 땅으로부터 쫓겨나있었다.
- F. **The people of the prince**: Gabriel introduced another prince called “the prince who is to come.” This prince is the Antichrist who makes a covenant in verse 27. The people of the prince are identified as the people who destroyed Jerusalem and the temple in 70 AD—the Roman army.  
**한 왕의 백성**: 가브리엘은 “장차 올 왕”으로 불리는 또 다른 왕을 언급했다. 이는 27 절에서 언약을 맺는 적그리스도이다. 왕의 백성은 주후 70 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사람들을 뜻하는데 바로 로마군대를 말한다.
1. No one knew who these people were until it was walked out historically when the Roman army destroyed Jerusalem and burned the temple in 70 AD. In other words, history has clarified that the “people” who destroyed Jerusalem were from the Roman army.  
 주후 70 년에 로마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움으로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기까지 아무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즉,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을 파괴한 “사람들” 이 로마군대였음이 확실해졌다.
  2. Many have destroyed Jerusalem—it has been destroyed 20 times since Jesus’ death. But only once were **both the city and the temple** destroyed soon after the Messiah was killed, and it happened in 70 AD.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함-그땅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20 번이나 파괴되었다. 그러나 단 한번, 바로 메시아의 죽음 직후에 **도성과 성전 모두가 파괴** 당했고 이 사건은 주후 70 년에 일어났다.
- G. **The end of Jerusalem**: The end of “it”—Jerusalem under Jewish leadership—came with a flood of destruction. The Roman military attacks brought desolation to Jerusalem and the temple.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의 마지막, 즉 유대인 지도자 아래의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파괴가 홍수처럼 밀려왔다. 로마의 군사적 공격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 <sup>26</sup>“...**the end of it shall be with a flood, and till the end of the war desolations are determined.**”  
 (Dan. 9:26)
- <sup>26</sup>...**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단 9:26)

- H. **Till the end of the war:** War and desolations were decreed by God until Jerusalem was completely destroyed. Until the end of the Jewish-Roman war (66-73 주후) desolations or great losses occurred in Israel continually; this was unlike the Maccabean revolt (167-160 BC) against the Seleucid Empire when Israel had many victories in warfare. Israel was not to fight against the Romans, because God had determined that desolation in Israel would continue to the end.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전쟁과 황폐함이 있을 것을 명하셨다. 유대-로마 전쟁 (주후 66-73 년)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황폐함과 큰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마카비 혁명과 달랐다 (주전 167-160 년). 이스라엘은 로마와 싸울 수조차 없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끝까지 계속될 것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 I. **With a flood:** The end of Jerusalem and the temple came with a flood of violence. This figure points to the vast scale of the destruction (Isa. 28:15-18; Dan. 11:22). The Roman army came like a flood and swept Jerusalem away. A flood of destruction overwhelmed Jerusalem (Isa. 8:8; Dan. 11:10, 22, 26, 40). Satan will come like a flood against Israel in the end times (Rev. 12:15).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 예루살렘과 성전의 마지막에는 난폭함이 홍수와 같이 밀려왔다. 이 모습은 엄청난 크기의 파괴를 뜻한다 (사 28:15-18; 단 11:22). 로마군대는 마치 홍수같이 밀려와서 예루살렘을 쓸고 갔다. 멸망의 홍수가 예루살렘을 덮었다 (사 8:8; 단 11:10, 22, 26, 40). 마지막 때에 사단은 마치 홍수와 같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다. (계 12:15)
- J. **Desolations are determined:** This reveals the extreme measures to which God will go to redeem a nation that He is zealous for. God has sovereignly determined specific things to occur in accomplishing His purposes (Isa. 10:23; 19:17; 28:22; Dan. 9:24, 26, 27; 11:36; Zech. 1:6; 8:14-15; Jer. 23:20; 30:24).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신 나라를 향해 그분이 어디까지 행하실 수 있는지의 극단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도록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 (사 10:23; 19:17; 28:22; 단 9:24, 26, 27; 11:36; 습 1:6; 8:14-15; 렘 23:20; 30:24).

#### IV. THE ANTICHRIST WILL CAUSE DESOLATION (DAN. 9:27)

##### 황폐케 하는 적그리스도 (단 9:27)

- A. Gabriel described events occurring *during* the 70th week (the final 7 years of this age) (9:27). The Antichrist will cause desolation, and then he will be destroyed. Verse 27 focuses on events related to Jesus' second coming, the Antichrist and his covenant, and the Great Tribulation.  
 가브리엘은 70 이레 (이 세상의 마지막 7 년) 동안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했다 (9:27). 적그리스도는 황폐함을 가져온 후, 멸망 당할 것이다. 27 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사건들, 적 그리스도와 그의 언약, 그리고 대환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sup>27</sup>“Then he [Antichrist] shall confirm a covenant with many [nations] for one week [7 years]; but in the middle of the week [3½ years] he shall bring an end to sacrifice and offering [in the temple]. And on the wing of abominations shall be one [Antichrist] who makes desolate, even until the consummation, which is determined, is poured out on the desolate [Antichrist].”

(Dan. 9:27)

<sup>27</sup>그 [적 그리스도] 가 장차 많은 사람들 [나라들] 과 더불어 한 이레 [7 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 [3 년 반] 에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 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단 9:27)

- B. There is a gap of 2,000+ years between the end of the 69th week and the start of the 70th week. It is the period between Jesus' first and second coming. I believe the reason the 2,000-year gap is not mentioned by Gabriel is because God's "prophetic calendar" pauses until the Jewish people are in the land, with a restored Jerusalem (as its governmental capital), and a functioning temple.  
69 이레의 마지막과 70 이레의 시작 사이에는 2,000 년 이상의 공백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시기이다. 내가 믿기로, 가브리엘이 2,000 년의 공백에 대해 언급 하지 않은 이유는 회복된 예루살렘 (정치적 수도) 과 기능을 수행하는 성전이 있는 그 땅에 유대인들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적 달력" 이 멈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C. After the end of the 70th week, the six blessings announced by Gabriel (v. 24) will be fully manifest on the earth. Thus the negative events in verse 27 are part of God's answer to Daniel's prayer for the future blessing of Israel. Wickedness must be brought to the surface worldwide before it can be removed from the earth forever.  
70 번째 이레가 끝이 난 후에, 가브리엘이 선포했던 6 가지 축복 (24 절)이 온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이다. 27 절의 부정적인 사건은 미래 이스라엘의 축복을 구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부분적 응답이다. 악함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이는 반드시 세계의 표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 D. The events prophesied in verses 25-26 have all been fulfilled in a way that is easily identifiable. This gives us confidence that the unfulfilled parts will surely come to pass (v. 27). Because verses 25 and 26 came to pass precisely as prophesied, we have confidence that verses 24 and 27 will also come to pass, precisely as it says.  
25 절과 26 절에서 예언된 사건들은 확인하기 쉬운 방법으로 온전히 성취 되었다. 이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 또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27 절). 왜냐하면 25 절과 26 절이 예언된 대로 명확하게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24 절과 27 절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 E. The Antichrist is referred to in two ways—first, as the "prince who is to come" (v. 26c) and second, as "one who make desolate" (v. 27d).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언급되었는데, 첫 번째는 '장차 올 왕' (26 절) 그리고 두 번째는 '황폐케 하는 자' 로 언급되었다 (27 절).
- F. In Daniel 9:27 the Antichrist's activities include confirming a covenant with many, stopping the sacrifices in the temple, establishing abominable practices, and making desolate—people, places, and institutions (religious, economic, social, legal, military, etc.).  
다니엘서 9: 27 에서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으며 성전에서의 제사를 폐하며, 가증한 행위들이 일어나도록 하며, 사람과 장소 그리고 여러 기관들 (종교, 경제, 사회, 법, 군대 등)을 황폐케 한다.
- G. In Daniel 9:24-27 Gabriel revealed three things that God has determined—first, His plan that involves significant events over 70 weeks (490 years, v. 24); second, a war with desolations against Israel in 70 AD (v. 26); and third, judgment to be poured out on the Antichrist (v. 27).  
다니엘서 9:24-27 절에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3 가지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70 이레 (490 년, 24 절) 동안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주후 70 년 (26 장) 에 일어날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는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적 그리스도에게 심판이 부여지게 됨 (27 절).

## V. TAKING THE SACRIFICES AWAY (DAN. 8:11-13; 9:27; 11:31; 12:11)

## 제사를 폐함 (단 8:11-13; 9:27; 11:31; 12:11)

- A. There are six verses in Daniel that give us insight into the daily sacrifices being removed (8:11, 12, 13; 9:27; 11:31; 12:11). When these six verses are considered together—letting Scripture interpret Scripture—then we see more clearly what God intended to be understood related to “taking away” or “bringing an end” to the daily sacrifices.  
다니엘서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구절이 6 군데가 있다 (단 8:11, 12, 13; 9:27; 11:31; 12:11). 이 6 구절들을 함께 숙고함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할 때,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문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B. Throughout the book of Daniel, the one who “takes the sacrifices away” is an evil man—who exalts himself, seeking to rival Jesus the Prince (8:11); who opposes the sacrifices and casts truth to the ground (8:12); who tramples underfoot the temple and the host (8:13); who confirms a covenant for seven years (9:27); who leads forces that defile the temple and place in it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11:31); and who takes the sacrifices away for 1,290 days (12:11).  
다니엘서를 통해, “제사를 폐하는” 이는 악한 인간이다-이는 스스로를 높이며 군대의 주재인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하며 (8:11); 제사를 반대하며, 진리를 땅에 던지며 (8:12);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히게 되며 (8:13);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9:27);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를 더럽히며 그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을 두며 (11:31); 1,290 일 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이다 (12:11).
- C. The sacrifices being taken away is emphasized each of the four times that Daniel refers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8:13; 9:27; 11:31; 12:11).  
제사가 폐해진다는 것은 다니엘이 멸망의 가증한 것을 언급하는 4 개의 구절에서 모두 강조되고 있다 (8:13; 9:27; 11:31; 12:11).
- D. The sacrifices were stopped by the Roman army in 70 AD, not by Jesus. His death on the cross made them invalid in a spiritual way, but Jesus did not stop them in the way the text demands.  
제사를 멈추게 한 것은 로마 군이었지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영적으로 적절하지 않게 만드신 것은 맞지만, 그분은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가 더 이상 드러지지 않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sup>27</sup>“Then he [Antichrist] shall **confirm a covenant with many [nations] for one week [7 years]; but in the middle of the week [3½ years] he shall bring an end to sacrifice and offering [in the temple]. And on the wing of abominations shall be one [Antichrist] who makes desolate, even until the consummation, which is determined, is poured out on the desolate [Antichrist].”**

(Dan. 9:27)

<sup>27</sup>그 [적그리스도] 가 장차 많은 사람들 [나라들] 과 더불어 한 이레 [7 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 [3 년 반] 에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 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단 9:27)

- E. **2,000-year gap:** Many messianic prophecies have a gap of 2,000+ years between Jesus' first and second comings. (Isa. 9:6-7; 42:2-4; 61:1-2; Zech. 9:9-10; Mal. 3:1-2; Lk. 3:16-17). Isa. 61:1-2a applies to both comings of Jesus, while the second part describes Jacob's trouble just prior to His return. In Lk. 3:16-17, John the Baptist's prophecy of Jesus' coming has a gap.  
**2,000 년의 공백:**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 년 이상의 공백을 가지고 있다. (사 9:6-7; 42:2-4; 61:1-2; 눅 3:16-17). 이사야 61:1-2a 절은 각각 초림, 재림에 적용되며, 둘째 부분은 그분의 재림 전에 있을 야곱의 환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누가복음 3:16-17 에 나오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세례 요한의 예언에는 간격이 있다.
- F. **He:** The antecedent of "he" is "the prince that shall come" (v. 26). (It is the last antecedent and, thus, it is the subject of the next verb). The end-time context of verse 27 points to the Antichrist. His actions and judgment are parallel to the little horn of Daniel 7. "He" is not Titus, Antiochus, or Jesus. None of these three made a covenant with Israel for seven years. No-one has yet fulfilled the details of verse 27, including confirming the seven-year covenant.  
**그가:** "그가" 의 선행사는 "장차 올 왕" 이다 (26 절). (이것은 마지막 선행사 이므로 다음 동사의 주어가 된다). 27 절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맥락을 볼 때 그 자는 적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 그의 행동과 판단은 다니엘서 7 장의 작은 뿔과 유사하다. "그"는 디도나 안티오쿠스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다. 이 3 명 중 그 누구도 7 년간의 조약을 맺지 않았다. 7 년간의 조약을 굳게 맺는 것을 포함해 27 절의 자세한 부분을 그 누구도 아직 성취하지 않았다.
- G. **Confirm a covenant:** The Antichrist will confirm a covenant with many nations for seven years. "Many" includes Israel and many Gentile nations. To confirm a covenant is "to make firm" a covenant that already exists. This covenant will be a political alliance that brings peace and safety (1 Thes. 5:3). This covenant will be the primary political event that signals the final seven years of this age.  
**언약을 굳게 맺음:** 적그리스도는 7 년동안 많은 나라들과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많은"은 이스라엘과 많은 이방 나라들을 포함한다. 조약을 굳게 맺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조약을 "견고히" 한다는 뜻이다. 이 언약은 평화와 안전 (살전 5:3)을 가져다 주는 정치적 동맹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이 세대의 마지막 7 년이 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될 것이다.  
<sup>3</sup>*For when they say, "Peace and safety!" then sudden destruction [Great Tribulation] comes upon them, as labor pains upon a pregnant woman. And they shall not escape. (1 Thes. 5:3)*  
<sup>3</sup>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 [대환난] 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3)
- H. Forerunner messengers will proclaim that a man will confirm a covenant that will bring peace to the Middle East. In conjunction with this covenant, Jewish leaders will be allowed to offer animal sacrifices and initiate the building of the Jewish temple on the Temple Mount in the very place where Islam's Dome of the Rock (also called the Noble Sanctuary) is located.  
선두주자 메신저들은 어떤 한 사람이 중동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라고 외칠 것이다. 이 언약과 함께 유대인 지도자들은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될 것이며, 성전 산위 이슬람 황금 돔 사원 (바위 사원, 고귀한 성전 이라고도 불림)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짓는 일이 허락될 것이다.
- I. **One week:** This is the final seven years of natural history, ending with the return of the Lord. This seven-year period is often referred to as "Daniel's 70th week."  
**한 이레:** 이는 자연적인 역사의 마지막 7 년이며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난다. 이 7 년의 기간은 종종 "다니엘의 70 번째 이레" 라고 표현 된다.

- J. **Middle of the week**: The middle of the week speaks of the 3½ -year mark, when the Antichrist shall bring an end to sacrifice and offering in the Jerusalem temple. In the middle of the week, or at the beginning of the second half of the 70th week, the Great Tribulation will begin (Mt. 24:21; Rev. 7:14). This is the same 3½ -year period referred to in Daniel 7:25.

**이레의 절반**: 이레의 절반이란 3 년 반을 뜻하며,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이레의 절반 혹은 70 번째 이레의 나머지 절반의 때에 대환난이 시작될 것이다 (마 24:21; 계 7:14). 이것은 다니엘서 7:25 절에서 언급된 3 년 반과 같은 시기이다.

- K. **Bring an end to sacrifice**: The Antichrist will stop the sacrifices in the temple. By doing this, he will violate his covenant with Israel in the area that is most sacred to them—their sacrifices.

**제사를 금하다**: 적그리스도는 성전에서의 제사를 금할 것이다. 이것으로 그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성스러운 부분 (제사)에서 그들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1. The sacrifices being taken away is emphasized each of the four times that Daniel refers to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Dan 8:13; 9:27; 11:31; 12:11). Every mention of it is identified with a wicked man who stops the sacrifices at the time of the end. Each time it is the Antichrist who is stopping the sacrifices (with Antiochus possibly as a type).  
다니엘이 멸망의 가증한 것을 언급한 4 개의 구절 모두에서 제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강조되고 있다 (단 8:13; 9:27; 11:31; 12:11). 매번 마지막 때에 악한 자가 제사를 금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각 구절에서 제사를 금하는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안티오쿠스가 예표로 쓰였을 수도 있는).
2. The sacrifices were not brought to an end by Jesus in the middle of a seven-year covenant; they were stopped by the Romans, 40 years later, in 70 AD.  
예수님 때에는 7 년의 조약 중간에 제사를 금한 일이 없었다; 40 년후인 주후 70 년에 로마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
3. Jesus' death put an end to the efficacy of animal sacrifices with regard to forgiveness of sins, but that is not what verse 27 is addressing. We must not separate 9:27 from 11:31 or 12:11, which define ending the sacrifices in terms of their physical removal from the temple while at the same time an abomination is occurring in the temple.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제에 관해 동물을 드리는 제사의 효험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였지만 이것이 27 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다. 우리는 9:27 을 11:31, 혹은 12:11 과 분리해서 봐서는 안 되는데, 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물리적으로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전에서 가증한 일이 일어나게 됨을 말하고 있다.
4. If Jesus was the one who stopped the sacrifices, then Titus must be the one who makes desolate, and who had God's judgment poured out on him. But this does not describe Titus. He went on to become emperor and suffered no harm after the siege of Jerusalem.  
만약 예수님이 제사를 금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받는 황폐케 하는 자는 디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디도와 관련이 없다.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후에도 황제가 되었고 어떤 해도 받지 않았다.

- L. **One who makes desolate**: The Antichrist is the one who makes desolate (the desolator, NRSV). He will do this in various ways that include defiling the temple, killing those who resist him, and causing the cities of the earth to be destroyed. A desolate city is unfit to live in. His atrocities will cause cities to be desolate. This will be the most terrible time in history (7:21-25; 12:1, 7).

**황폐하게 하는 자**: 황폐하게 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에게 저항하는 이들을 죽이며, 이 땅의 도시들을 파괴함으로 황폐하게 할 것이다. 황폐한 도시는 거주하기에 부적합하다. 그의 잔혹한 행위는 도시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때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기가 될 것이다 (7:21-25; 12:1, 7).

<sup>27</sup>“**On the wing of abominations shall be one who makes desolate, even until the consummation, which is determined, is poured out on the desolate [the desolator, NRSV].**” (Dan. 9:27)

<sup>27</sup>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단 9:27)

1. Desolation is the state of being desolate or devastated or ruined with utter wretchedness. To be desolate means to be devoid of inhabitants, lifeless, and made unfit for habitation. 황폐함은 멸망케 되거나 완전히 파괴된 상태 혹은 비참하게 망하게 된 것을 뜻한다. 황폐하여진다는 것은 거주민이 없고 죽은 듯 하며, 살아가기에 부적합하다는 뜻이다.
2. His abominations related to the temple will lead to a situation that will cause desolation to come to the earth. The earth will be emptied, or desolate, as a result of his actions. 성전과 연관된 그의 가증함은 이 땅을 황폐하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이 땅은 그의 가증한 행동으로 인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sup>1</sup>The LORD makes the earth **empty** and makes it **waste**, distorts its surface and scatters abroad its inhabitants...<sup>3</sup>The land shall be entirely **emptied** and **utterly plundered**...<sup>5</sup>The earth is defiled under its inhabitants, because they have transgressed the laws...<sup>6</sup>Therefore the curse has **devoured the earth**, and those who dwell in it are **desolate**. Therefore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burned**, and **few men are left**. (Isa. 24:1-6)

<sup>1</sup>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흠으시리니...<sup>3</sup>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sup>5</sup>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sup>6</sup>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사 24:1-6)

3. Many amillennialists see this desolation as Rome’s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But Rome did not put an idol in the temple, and this is an essential part of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많은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황폐함을 주후 70 년에 로마에 의해 벌어진 예루살렘 파괴로 보고 있다. 그러나 로마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지 않았으며, 이는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예언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 M. **On the wing of abominations**: This refers to the Antichrist’s extreme abominations. “On the wing of abominations” is a figure for great or “overspreading abominations” (KJV). The Antichrist will make many desolate by his policies that enforce his extreme abominations.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가증함을 나타낸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의 뜻은 “그가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한글 KJV)” 이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극단적인 가증함을 시행되게 하는 정책으로 인해 그는 많은 황폐함을 낳을 것이다.

<sup>27</sup>“**For the overspreading of abominations he shall make it desolate...**” (Dan. 9:27, KJV)

<sup>27</sup>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단 9:27)

1. A literal reading: “on the wing of abominations will come one who causes desolation.”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consists of the Antichrist’s image being placed in the temple, with the demand that he be worshiped as God (2 Thes. 2:4; Rev. 13:14-17).  
문자 그대로 읽기: “가증한 것의 날개에 황폐하게 하는 자가 올 것이다.” 멸망의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며,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일 등을 말한다 (살후 2:4; 계 13:14-17).
2. Daniel 9:27 mentions the abominations, which are later elaborated on (11:31; 12:11).  
다니엘서 9:27 절은 가증한 것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후에 더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11:31; 12:11)

N. **Consummation:** This speaks of the fullness of judgment being poured out on the Antichrist. The cup of wrath will be fully poured out until it reaches to the very end of God’s judgments. He will continue in his abominations and desolating activities until judgment destroys him.  
**종말:** 이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부여될 심판을 뜻한다.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마지막까지 계속 부여될 것이다. 그는 심판이 그를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가증하고 황폐하게 하는 행동을 일삼을 것이다.

<sup>27</sup> “On the wing of abominations shall be one who makes desolate, even until the consummation, which is determined, is poured out on the desolate.” (Dan. 9:27)

<sup>27</sup>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단 9:27)

1. “Poured out” speaks of a flood of God’s judgment that will destroy the Antichrist (Dan. 7:9-12, 26; 2 Thes. 2:8; Rev 19:19-21). The Antichrist will be unrelenting in causing desolation until the “God-appointed consummation” of fullness of judgment stops him.  
“쏟아진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멸망하게 할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를 뜻한다 (단 7:9-12, 26; 살전 2:8; 계 19:19-21).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미 정한 종말”이 임해서 그를 멈출 때까지 끊임없이 황폐함을 일삼을 것이다.
2. God has determined that desolation will be poured out in fullness on the Antichrist. Thus, He will empower Israel army to resist Antichrist’s attacks (Zech. 9:13; 10:3-7; 12:5-8).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한 멸망이 부여되도록 할 것을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도록 힘을 부으실 것이다 (슥 9:13; 10:3-7; 12:5-8).

O. **Determined:** God has determined to pour out judgment on the Antichrist (the desolate one). God only declares His sovereign determination to act in specific ways in dealing with the nations when it relates to something that is of great importance to His global purposes (Isa. 10:23; 19:17; 28:22; Dan. 9:24, 26-27; 11:36; Zech. 1:6; 8:14-15; Jer. 23:20; 30:24).

**정하심:** 하나님은 적그리스도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심판을 부으실 것을 결정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열방을 향한 그분의 목적에 있어 중요한 열방의 특정한 일에 대해, 그분의 주권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리신다 (사 10:23; 19:17; 28:22; 단 9:24, 26-27; 11:36; 슥 1:6; 8:14-15; 렘 23:20; 30:24).

<sup>27</sup> “...until the consummation, which is determined, is poured out on the desolate.” (Dan. 9:27)

<sup>27</sup>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단 9:27)

- P. Daniel described the Antichrist's judgment four times, emphasizing that he will be *consumed, destroyed, and broken without human means* (by divine intervention), and that no military alliance will be able to *help him* or support or rescue him from God's judgment (7:11, 26; 8:25; 11:45).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 4 번이나 기술하며, 그가 소멸되고, 멸망되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즉, 주님이 개입하심)과 어떤 군사적인 동맹도 그를 돕거나 지지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를 구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7:11, 26; 8:25; 11:45).
- <sup>26</sup>“*They shall take away his [Antichrist's] dominion, to consume and destroy it forever.” (Dan. 7:26)*  
<sup>26</sup>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적 그리스도] 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한글 KJV: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단 7:26)
- <sup>11</sup>“*I watched till the beast was slain, and its body destroyed and given to the burning flame.” (Dan. 7:11)*  
<sup>11</sup>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단 7:11)
- <sup>25</sup>“*He shall even rise against the Prince [Jesus]...he shall be broken without human means.” (Dan. 8:25)*  
<sup>25</sup>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예수님] 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단 8:25)
- <sup>45</sup>“*...yet he [Antichrist] shall come to his end, and no one will help him.” (Dan. 11:45)*  
<sup>45</sup> 그 [적 그리스도] 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 (단 11:45)
- Q. Jesus will breathe on the Antichrist (2 Thes. 2:8) to immobilize him, so that he might be captured and thrown alive in the lake of fire (Rev. 19:20). Paul used the same two verbs that Daniel used to describe the Antichrist's end—consume and destroy (2 Thes. 2:8; Dan. 7:11, 26).  
예수님은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며 (살후 2:8) 산 채로 잡혀 불 못에 던짐을 당하도록 하실 것이다 (계 19:20). 바울은 다니엘이 적그리스도의 결국을 묘사하는데 사용했던 2 가지 같은 동사를 사용했다- 소멸하다, 멸망시키다 (살전 2:8; 단 7:11, 26).
- <sup>8</sup> *And then the lawless one [Antichrist] will be revealed, whom the Lord will consume with the breath of His mouth and destroy with the brightness of His coming. (2 Thes. 2:8)*  
<sup>8</sup> 그 때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살후 2:8)
- <sup>20</sup>“*Then the beast [Antichrist] was captured, and with him the false prophet...these two were cast alive into the lake of fire burning with brimstone. (Rev. 19:20)*  
<sup>20</sup> 짐승 [적그리스도] 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 19:20)
- R. The Lord Himself will gather the armies of all the ungodly nations to stand against Israel (Joel 3:2, 12; Zech. 12:3; 14:2; Zeph. 3:8; Ezek. 38:4; 39:2).  
주님은 친히 모든 이방 나라의 군대를 모으셔서 이스라엘과 맞서게 하실 것이다 (을 3:2, 12; 습 12:3; 14:2; 습 3:8; 겔 38:4; 39:2).
- <sup>2</sup>“*For 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to battle against Jerusalem.*” (Zech. 14:2)  
<sup>2</sup>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습 14:2)

<sup>8</sup>“My determination is to gather the nations to My assembly of kingdoms [at Jerusalem], to pour on them My indignation...all the earth shall be devoured with...My jealousy.” (Zeph. 3:8)

<sup>8</sup>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예루살렘에]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습 3:8)

- S. In that Day, Jesus will show Himself as the **greater Moses** when He frees the captives of Israel from prison camps. He will be seen as the **greater Joshua** when He leads the liberated ones to the promised land, and as the **greater David** when He wins back Jerusalem and establishes His throne and temple there! He will come as the **greater Elijah** to confront the Antichrist, cleanse the earth of idolatry, and turn Israel and the nations to God.

그 날에,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을 수용소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예수님은 더 큰 모세로서 주님을 보이실 것이다. 그분은 자유케 된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심으로 더 큰 여호수아로서 주님을 나타내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그분의 성전과 보좌를 세우실 때 더 큰 다윗으로서 주님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분이 적그리스도와 맞서시고, 땅에서 우상들을 정결케 하시며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실 때 더 큰 엘리야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